■ 주간 증시 전망

미·중 관세부과 조치 결과 관심 집중
코스피 관망세 속 하방경직성 전망
건설·증권주 중심 보수적 시장대응 필요

2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국기업을 인수 할 수 없도록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글로벌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며 달러화가 급등하고 위안화를 비롯한 이머징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1120원선까지 상승했고 환율변화에 민감한 외국인이 환율에 따라 국내주식시장에 큰폭의 순매도, 순매수를 반복하며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금요일 장중 23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2326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한주간 -1.45% 하락하며 818포인트에 머물렀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급등과 저항선에 임박하며 속도조절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필자가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미국의 경기지표가 기대이상으로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6월 금리인상 및 연내 2회의 추가금리인상을 시사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경기가 회복구도에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12월말까지 자산매입을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유보했다.

이는 유로화 약세와 달러강세 구도를 만들며 이머징통화가치 하락으로 작용했고 이머징 증시에 하락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번 주는 폼페이오국무장관의 북한방문과 오는 6일 예정된 미중· 쌍방의 관세부과조치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세부 조율을 거치면서 실행단계로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액션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북관련주는 최근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관련기업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되는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반등을 이용해 보유물량을 조절하는 기회로 삼는것이 좋아 보인다.

한편, 오는 6일 예정된 미·중 관세부과조치는 하반기 글로벌시장 및 국내증시의 방향성과 변동폭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정부 관계자들의 물밑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6일 쌍방 관세부과 이전에 관세유예를 위시한 출구전략에 나서거나 한쪽 국가에서 큰 폭의 양보를 보인다면 시장은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대통령이 즉각적인 대타협에 나설 동기가 크지 않고 중국도 위안화 약세와 내수시장부양으로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인다.

필자는 6일 양국이 관세부과조치 이후 양국 모두 파국으로 가는 연쇄적인 보복조치 보다는 시간을 두고 후속협상을 통해 진화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전리품으로 미·중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우선주의를 확인하며 선거승리를 원하고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통한 미·중 무역적자 축소와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안(1985년 '플라자합의' 형태)에 합의한다면 양국 모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양국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시장 피로감과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 협상과정에 집중하며 시장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이번 주는 코스피지수 바닥권인 2300선에 근접한데 따라 하방경직성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증권 등 낙폭과대 실적주와 개별재료 보유종목을 중심으로 보수적인 시장대응이 필요해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광주·전남 한우-양계농가 명암 엇갈려

한우 도축 마릿수 줄어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전망
닭고기 공급과잉·수입량 증가 하반기까지 하락세

광주·전남지역 한우와 양계 축산농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우는 도축마릿수가 감소하면서 꾸준히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닭고기는 올 하반기까지 공급과잉 문제로 가격이 상당기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7월 축산관측전망' 자료를 보면 이달 도축되는 한우의 마릿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도 한우 1등급 도매가는 전년보다 9.8% 상승한 1kg당 1만8399원이었으며, 2~3등급 역시 같은 기간보다 9~15% 상승한 1만1905~1만5091원으로 파악됐다.

도축 물량이 줄어든 게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역시 거세우 출하대기 물량이 감소하면서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1kg당 1만6713원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다. 이는 평년(1만6292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최근 한우고기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송아지 가격도 덩달아 고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6~7개월짜리 수송아지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4.2% 오른 408만원이었고, 암송아지 역시 2.4% 상승하면서 318만원을 기록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송아지 가격이 점차 오르면서 현재 청탁금지법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게 농경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닭고기는 여전히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6월 육계의 산지가격은 도축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1666원에 비해 33.6%나 하락한 1kg당 1106원이었다. 소비자 가격도 같은 기간 17.1% 하락한 4713원이었다.

이런 현상은 닭고기 공급 증가로 인한 이달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무려 41.8%나 하락한 1kg당 950~1150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병아리 생산 증가로 육계 사육마릿수도 전년보다 11.3%나 증가해 1억4467만마리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도축되는 닭도 12.4% 증가한 1억1562만마리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달 냉동 비축해둔 물량도 상당히 있는데다, 닭고기 수입량까지 증가해 닭고기 가격 하락세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 양계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 닭고기 냉동 비축 물량은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74.0% 증가한 1223만 마리였고, 이달 닭고기 수입은 12.8% 증가한 9000t톤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오는 8~9월에도 도축량이 8551만마리~9617만마리로 8%~8.2%상당 증가, 산지가격도 900원~11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경연 관계자는 "육계 산지가격이 상당기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수급 조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우수농산물 산지가격 특판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사장 나규상)에서 광주지역 우수농산물 산지가격 특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애플수박, 흑토마토, 애호박, 팽팽이가지,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완두콩, 강낭콩, 호랑이콩, 오디생과, 꽈리고추, 청량고추, 수박, 양송이버섯 등 우수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산지가격에 판매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광주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앞으로 비즈니스 투어단을 운영하고, 소비지 유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김일수 본부장은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우리 농산물이 갈수록 외면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집중호우 침수피해 해남 선두마을에 생필품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해남 문내면 선두마을을 찾아 침수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남 선두마을에는 지난달 3일간 총 235㎜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15가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침수피해 주민 28명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날 전남농협은 침수피해 현장에 라면과 생수 등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집중호우가 끝나는 대로 침수피해 농가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농협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농업인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며 "농협은 농업인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위해 농가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진청, 가업 잇는 농업인 경영지원 강화

농촌진흥청은 농촌융합·복합산업 분야에서 대를 잇는 가업 승계농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과 경영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일 전북 전주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융합·복합산업 가업 승계농 상품 기업 연계 품평회'를 열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업 승계농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출품된 상품 중 디자인과 편의성이 뛰어난 제품은 유통업체와 입점 계약을 맺을 기회를 준다. 하반기에는 가업 승계농을 대상으로 한 경영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영농·가공 관련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가업 승계농이 경영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융합·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SAMSUNG LG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렌탈 : 설치비용 0원 ②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SUNGREENENERGY.CO.,LTD
S.G.E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